

#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면담 조사 연구

— 김형직사범대학 연수생 출신의 제보자 면담을 중심으로 —

강남옥\*

## < 차례 >

###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선행연구

### II. 본론

1. 파견 배경 · 경로 및 연수 동기
2. 조선어 교과와 운영
3.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만족도

### III. 결론

## I. 서론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북한의 대학에서 이른바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연수’를 받은 중국 유학생 제보자(提報者, informants)의 심층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이루어진 조선어교육 운영의 면면을 재구성하는 데 그 목적이

\* 호서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kangnw@hoseo.edu)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매우 제한된 정보로만 알려진 북한의 조선어교육<sup>1)</sup> 실태를 보다 거시적·조직적으로 조망하고, 근래 비약적인 성장기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든 남한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비교하여 시사점과 논의점을 찾고자 한다.

한국, 즉 남한은 1980년대 이후 압도적인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 혹은 자본시장경제 무대에서 국제 사회의 중심적인 위상을 획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권력의 세습으로 이어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 20세기 이후 현대사를 거쳐 바로 최근까지 이어져 온 일련의 무력 도발로 고정된 호전적이고 반민주적인 집단이라는 인식,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지역이자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라는 오명을 얻어 국제 사회에서 그 입지(立地)가 그다지 넓지는 않으며, 그러한 점에서 한국어교육이라는 학문적 견지에서도 북한, 혹은 외국어로서 교육되는 북한의 언어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연구 이외에는 거의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① 최근 북한의 권력 세습 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북중(北中) 사이의 관계에서 보듯 중국은 소위 ‘혈맹(血盟)’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을 외교적 우방으로서 대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적극 관철하여 통일 문제에서 일정한 지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사실, 또 ② 북한과 중동 일부 국가와 아프리카의 제3국가와 맺고 있는 선린(善隣) 관계 등에서 보듯 북한 역시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③ 국제 사회와의 소통의 방식으로 북한 역시 해외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외국어로서 북한 언어를 교수·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를 인식하고 있는 큰 영역이 남북의 통일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가 어떻

1) 남한의 ‘한국어’이든 북한에서 일컫는 ‘조선어’이든 한반도에서 쓰이는 한민족의 언어라는 점에서 ‘한국어’로 통칭하고 외국어로서 교수·학습되는 외국어교육의 영역도 ‘한국어 교육’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는 광의의 의미로는 남북한을 아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자, 협의로는 남한의 한국어교육을 지칭하는 데 동시에 사용될 것이다.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조선어교육’, ‘남한의 한국어교육’으로 구별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게 가르쳐지고 학습되는지를 살펴보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문적 과제라 여겨진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북한이 꾸준히 중국 유학생(중·장기 체류 어학연수생 포함)들을 정책적으로 유치하여 외국어로서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는 근래의 상황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국가 유학 기금 관리 위원회(國家 留學 基金 管理 委員會; Chinese Scholarship Council)<sup>2)</sup>’를 주무 부처로 하여 대학 사이의 국제 교류 업무를 조율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국제지역문제연구 및 고급 외국어 인력 양성 분야’ 내 ‘조선 교환 장학생 부문’으로 2011년 3월에도 파견자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이들의 조선어교육 만족도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의 시행에 대한 소감, 또한 이들의 향후 진로를 파악해 두는 것은 한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정책론의 측면에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수행되는 목적과 필요성 또한 이로써 마련된다고 하겠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와 제보자 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 대상의 모습을 해석하고 재구하는 방식을 취한다.<sup>4)</sup> 연구 대상인 북한 소재 한국어교

2) 해당 사이트 참조 : [www.csc.edu.cn](http://www.csc.edu.cn)

3) 웹페이지 [http : //www.csc.edu.cn/Chuguo/4111832c702f42e599ae733728c47aad.shtml](http://www.csc.edu.cn/Chuguo/4111832c702f42e599ae733728c47aad.shtml) 참고(검색일자 2011년 2월 17일). 파견 규모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으나 제보자가 중국에서 살펴본 언론 기사를 토대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에는 약 50명 수준의 유학생들을 북한에 파견하였다고 한다.

4) 질적 접근에서는 ‘조사 대상’, 혹은 ‘내담자(來談者)’ 등 연구자를 주체, 대상을 객체로 놓는 용어보다 ‘제보자’, ‘참여자’ 등 양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 서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쓴다(조용환, 1999 : 22 수정 인용). 본 연구는 일부 문헌 자료에도 기대고 있지만 전적으로 면담을 나눈 제보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은 바가 크기에 연구의 객체가 아닌 공동 주체로서의 자격을 지닌다. 제보자는 북한 연수 생활 전반에 대한 전반을 연구자에게 공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체류 시 취득한 각종 기록물(교재, 유인물,

육 기관(대학교)은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교재 이외의 자료를 수집하여 탐구할 수 없다는 물리적 제약이 있으므로, 해당 교육 기관을 실제 체험한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논리적인 추론을 시도하고자 한다.

물론 제보자의 경험이나 기억, 개별적으로 접한 정보는 불완전하므로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 동일한 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복수의 제보자를 섭외하였다. 한 사람만의 면담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는 불완전하거나 불확실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2인 이상의 제보자를 섭외하되, 여러 기관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한 기관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동일 기관 연수자를 물색하였다.

둘째, 연구를 위한 제보자는 비슷한 시기에 연수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같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행정, 교육 자료, 교육 방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소 시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정 시기의 조선어교육을 가장 정확하게 재구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셋째, 이후 한국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현재 한국어 사용과 무관한 사람, 아직 학부를 마치지 않아 연구자와 충분히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제외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한 외국어 교육을 반추할 수 있고 그 성패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서로 친분이 있는 경우는 면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던 교우(交友) 관계의 사람들을 접할 경우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미 상호 교류한 동일한 오정보(誤情報)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별 기준에 따라 연구자는 다음 <표 1>과 같은 두 명의 제보자를 섭외하였다. 이 두 제보자는 모두 자신의 출신 대학교에 2000년

9월 입학하여 3개 학기 동안의 한국어 학습을 마친 후, 추천을 통해 2002년 3월에 학점 교류 어학 연수생 신분으로 선발되어 평양 김형직사범대학<sup>5)</sup>에 2002년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체류했다.<sup>6)</sup> 이들은 학부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현재 모두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동 대학 대학원의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여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이들은 서로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가 다르며, 북한에 입국하여 연수를 받는 기간에는 서로 옆 학급 동료로서 안면(顔面)이 있기는 했지만, 귀국한 이후로는 거의 왕래가 없어 상호 간섭 없는 독립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 1〉 제보자 구성 및 배경

| 제보자 <sup>7)</sup> | 출신 대학                  | 현재 신분                                   |
|-------------------|------------------------|---|
| A                 | 산동사범대학교<br>한국어과        | 경기도 소재 C대학원대학교<br>교육학전공(비교교육) 박사과정 재학 중 |
| B                 | 대외경제무역대학<br>외국어학원 한국어과 | 서울 소재 D대학교 대학원<br>한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재학 중     |

연구자는 해당 제보자들을 섭외한 후, 장기적인 면담 계획에 따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이전에는 면담 내용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 5) 김형직사범대학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참고로 대학 조직, 학부 구성, 특성, 연혁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료(<http://ko.wikipedia.org/wiki/김형직사범대학>) 등에서 얻을 수 있다.
- 6) 이들이 연수를 받은 후 8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점은 분명 최신의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된다. 그러나 ① 연수를 마치고 재적 학교에서 남은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 유학을 오기까지 5~6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 ② 북한 연수의 경험을 충분히 반추(反芻)하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시일이 걸린다는 점, ③ 2002년 이후 북한의 경제 지표, 교육 지표에서 큰 도약이나 차이가 없어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외형적 조건이 없다는 점(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서비스([www.kosis.kr/bukhan](http://www.kosis.kr/bukhan)) 중 ‘경제총량·교육’ 영역 참고), ④ 최근이 아니라도 한 시기의 상황과 현상을 포착하는 것 또한 학술적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동시에 최근에 북한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내 연구자들의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7) 제보자의 성명과 재학 대학명은 이니셜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임의의 알파벳을 부여하였음을 밝혀 둔다.

것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사전 질문지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면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전에 준비를 부탁한 다음, 북한 체류 시 사용했던 한국어 교재와 기타 자료 등을 방학 기간 중 일시 귀국한 사이 수습하여 준비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하였다. 면담 진행의 경과를 밝히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일정 및 진행 경과

| 제보자 | 섭외 접촉    | 자료 요청  | 질문지 발송   | 1차 면담         | 2차 면담         |
|-----|----------|--------|----------|---------------|---------------|
| A   | 2010. 1. | 겨울방학 중 | 2010. 4. | 2010. 5. 2.   | 2010. 5. 5.   |
| B   | 2010. 6. | 여름방학 중 | 2010. 9. | 2010. 10. 12. | 2010. 10. 16. |

두 제보자는 한국어 6급 이상의 고급 한국어 구사자로, 한국어를 구사하거나 연구자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면담의 내용은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하지 않았으며, 제보자의 정보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공개하지 않는다. 면담의 내용은 주로 자신들이 교류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파견된 다음 그곳에서 공부하던 당시의 상황, 현지에서의 생활, 학습 환경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제보와 증언, 귀국 후의 소감이나 자기 평가 발언 등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의 결과물은 매우 사적인 부분부터 정치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주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텍스트 파일 형태(\*.txt)로 입력 코딩하고 ‘외국어교육’이라는 지점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려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외 연수의 동기과 절차, 외국어 학습 교재와 교수-학습 방법,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교실 환경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 3. 선행 연구

북한의 언어정책이나 국어학, 남북한 문법이나 어법에 대한 비교, 또

는 내국인을 위한 북한의 국어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연구가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논의는 모두 다 검토하여도 여섯 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연구도 원론적으로는 모두 교재 분석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언어와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를 더 상세히 규명한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과 교재 연구, 그리고 제2언어 또는 외국어 교육 수행 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와 면담 기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방법론 연구가 그것이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물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任洪彬(1993)에서는 북한의 언어 연구를 언어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묶고, 특히 언어를 운용하고 정책적으로 시행한 사실들에 대한 방대한 조사 결과를 엮어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학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교육 연구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자료 결과를 연대기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크게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외국어교육 정책 역시 중요한 언어 정책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들로부터 대외 조선어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려운데, 그 점에서 추후 연구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호철(1996)에서는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어학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특별히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연구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찾기가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김중섭(2000)에서도 그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권재일(2006)에서는 북한에서 견지하고 있는 언어 철학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즉 북한의 언어관은 초기 유물론적 도구관에 입각하여 토대를 갖춘 이후, 2005년 이후 주체의 언어관을 세운 이후 민족어의 독창성과 인본 위주의 언어관으로 확립시켰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부터 비롯하여 외국인을 위한 조선어교육의 입론은 다음의 김일성의 교시와 이에 이어진 김정일의 지적에 힘입어 이루어진 바 크다 하겠다.

사실 우리 나라 말은 높고낮음이 똑똑하고 말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라 발음법을 배우면 아무 나라 말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0권, p.347)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말은 높고낮음이 똑똑하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류창하고 매우 아름답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 수 있고 울릴 수도 있으며 웃길 수도 있다. 또한 우리 말은 레의법절을 똑똑히 나타낼 수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매우 좋다.

(『김정일선집』 제3권, p.137)<sup>8)</sup>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지금까지 모두 여섯 편이 보고된 바 있다. 김중섭·조현용(1996, 1998), 金重燮(2000), 이주행(2004), 이관식(2005, 2007) 이 그것인데, 이들 연구는 외적으로는 북한의 언어정책, 북한의 한국어교육,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 등의 표제를 달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모두 북한의 조선어교육 교재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이관식(2007)은 외국인을 위한 북한 문화(특히 민속과 풍습) 교육과 교재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어학 중심의 교재를 대상으로 다룬 논문은 총 다섯 편으로 좁혀진다.

김중섭·조현용(1996, 1998), 金重燮(2000)은 중국, 러시아 등에서 어렵게 북한의 사료(史料)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재의 구성과 내용, 어휘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북한에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측하거나 남한의 한국어교육과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 시기에 직접 입수한 자료를 통해 폐쇄적인 북한의 조선어교육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북한 한국어교육의 실상을 밝히는 선도적(先導的)인 연구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제시한 주요 자료들의 서지 사항이 불분명하거나(김중섭·조현용, 1998), 교재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 교재를 활용한 진정한 교육 사태(事態)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8) 이 두 인용은 각각 김윤교(2002 : 1)과 리갑재(1999 : 6)에서 재인용하였다.



또한 이주행(2004)의 연구와 이관식(2005)의 연구는 교재 분석과 비교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교재가 어떻게 활용되었을 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재 그 자체의 구성과 체제에 집중하여 문법론이나 교재 제작론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세 번째 선행연구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외국어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론’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접근법에 관련된 것으로, 한국어교육의 선행연구보다는 일반 외국어교육이나 제2외국어교육의 이론에서 드물게 살펴볼 수 있다. Ellis(1998 : 217-238)는 외국어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만 교재나 교육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 체계, 교수법, 학생 생활 전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밑줄 연구자)는 언급은 본 연구가 취하는 연구 입장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는 외국어교육의 평가에는 ‘거시적(Macro) 평가’와 ‘미시적(Micro) 평가’가 있음을 도시(圖示)하면서 거시 평가의 하위분류로 행정 평가와 교육과정 평가를, 미시 평가의 하위분류로 조직 및 일정표 평가, 교재 평가, 교사 평가, 학습자 평가 등을 예로 들었다 (Ellis (in Tomlinson (ed.)), 1998 : 219).

본고의 연구 역시 앞서 말한 외국어교육 기관 평가 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어교육 기관 평가를 위해 그 방법론으로 문헌 조사나 방문·참여 조사, 지표 분석 등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보자에 의한 면담 조사를 방법론으로 접근하였다. 면담 조사 연구를 활용한 외국어교육(한국어교육) 연구의 연구 사례 역시 여러 영역에서 상당히 있으나 그 연구사가 본고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세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방법론으로서의 면담 연구에 대한 접근은 앞서 각주 4)번에서 다룬 바와 같다.

이외 허재영(2007 : 291-319)에서는 중국의 동북 3성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족학교의 조선어교육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조선어교육 그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 편제, 교재 구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가 연구하는 방향에도 시사점을 준다.

## II. 본론

### 1. 파견 배경·경로 및 연수 동기

#### 1.1. 파견 배경 및 경로

제보자들이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국가 유학 기금 관리 위원회의 ‘대학 대 대학 학점 교류 연수’ 프로그램이다. 두 제보자는 모두 한족 출신의 한국어 학습자로, 2000년 9월 대학교에 입학한 후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1년 6개월 후, 즉 3개 학기를 수료하였을 때 학과 교수의 추천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선배들 중 일부가 이 프로그램으로 북한에 다녀온 것을 인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에 대한 기대를 하거나 파견 프로그램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황은 없었다. 단지 성적 우수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이고, 또 한국어(조선어)가 쓰이는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동시에 유사 교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이 이루어지며, 체류 시 학비 부담이 없는 정부 선발 장학생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전에 대해 가장 크게 고려하였다.

제보자 A는 자신이 다녀온 프로그램이 자신의 학교인 산동사범대학과 김형직사범대 간의 직접적인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로 기억하고 있었다. B 역시 처음에는 자신이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이 학교 간 교류에 의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현지에 가서 대사관의 설명과 주변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것이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사후에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 A : 제 기억에는 제가 다닌 산동사범대, 산동대, 북경외대, 북경대, 대련외대, 북경어언대, 이렇게 여섯 학교가 왔던 거 같아요. 이 중 세 개 학교는 김형직사범대학에, 세 개 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늘 같은 대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 개 대학으로 묶어 해마다 교대로 다른 학교에 보냈던 것으로 기억나요. 저희가 갔던 해는 산동사범대가 김형직사범대로 간 거죠. 2002년에 저희 학교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 평양에 갔어요.<sup>9)</sup>

제보자 B : 나중에 북한으로 출발할 때 중국 각지에 있는 한국어과 학생들이 여럿이 모여 파견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저와 같이 입학한 동기 여섯 명이 교수님 추천을 받아 가게 되었고, 그때 교수님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교육비를 모두 받으면서 그곳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고 소개해 주었어요.

평양에 모두 도착해서 모였을 때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숫자가 왔더라고요. 북경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 학생 6명(여자 5, 남자 1), 산동대학교 한국어과 학생 4명(여자 3명, 남자 1명), 산동사범대학교 한국어과에서 4명(여자 3, 남자 1)이 왔고, 북경대학교와 북경언어대학교 학생들도 각각 7명쯤 왔어요. 대외경제무역대, 북경외대, 산동대, 산동사범대의 네 학교 학생들은 모두 김형직사범대학으로 갔고, 북경대와 북경언어대 학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처음 잠깐 만나 헤어진 다음에는 그렇게 자주 만나진 못했어요.

이 두 명의 제보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몇 가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나타난다. 즉 제보자 A는 대련외국어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B 본인이 대외경제무역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A가 이 대학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의 기억이 다소 맞지 않거나 대학 이름 상의 유사성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B는 산동사범대에서 4명이 온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산동사범대 출신인 B의 면담 내용에서는 자신의 동기들이 모두 5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소 부

9) 해당 증언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 취재 메모를 통해 다시 구성한 것이다. 제보자가 녹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대화문은 완전한 전사(轉寫) 방식은 아니지만, 장시간에 걸쳐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발언 내용에는 변형이 없음을 밝혀 둔다. 이하 증언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정확한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일치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두 제보자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일치된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 ① 매년 봄에 파견하며, 6개 대학에서 약 4~7명 정도의 파견 학생을 선발한다.
- ② 파견된 학생을 학교별로 두 그룹으로 묶어 한 그룹은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른 한 그룹은 김형직사범대학에 파견한다. 따라서 이 두 대학은 해당 조선어 연수 프로그램의 주관 대학으로 볼 수 있다.
- ③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룹을 묶는 중국 내 학교는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파견이 되는 북한 내 학교는 교대로 바뀌기도 한다.

제보자 B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 매년 비슷한 숫자의 학생들이 11개월 단위(3월 시작 1월 종료)의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발이 되어 연수를 받기 시작하지만, 재학 학교에 복학하는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사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한 북한에서 추운 날씨 속에 통신도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겨울 방학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 대부분 중국의 춘절이 되기 전인 12월 초중순에 연수 종료를 신청하고 귀국한다. 두 제보자 모두 11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았고, 12월 중순에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 1.2. 연수 동기

연수의 동기는 두 제보자 모두 비슷했다. 최종적으로는 자의에 의한 결정이었겠지만 대학교 초년 학생들로서 대학 교수의 추천과 권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이 북한에 가기 전까지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았고, 단순히 자신이 전공으로 배우는 외국어가 사용되는 국가에 직접 체류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초급 과정을 마친 학생들로서, 비교적 중장기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제보자 B : 이전에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그냥 우리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또 내가 배우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곳, 가난한 나라라는 정도였어요. 나라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대어 준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은 전혀 없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기숙사 시설이나 환경, 음식, 통신 등 생활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았어요. 또 저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 가는 거니까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많이 되었고요.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연수의 동기는 ① 현지 체류 연수에 대한 매력, ② 경제적 지원, ③ 추천자의 권유, ⑤ 선발 학생이라는 자긍심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 2. 조선어 교과와 운영

### 2.1. 교과 운영 및 교육 시간

연수생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수업을 받았다. 따라서 1주일에 약 20시간의 수업이 있었고, 연수 기간 동안 총 530시간 정도의 학습 시간이 누적되었다. 한 과목 당 1교시는 45분이 기준이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계속되는 수업은 강독 시간 2교시(90분)와 회화 시간 2교시(90분)였다.

이외 교과는 가끔씩 특별하게 편성되는 교과였다. ‘조선 지리’, ‘김일성 주체사상’이 1교시 단위 수업으로 편성이 되곤 하였는데, 이것은 교환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이었다. 중국에서도 졸업을 하기 위한 필수 학점으로 ‘모택동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념’ 등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수강한 ‘김일성 주체사상’ 등의 수업은 이수 학점 기준에 맞춰 수강을 하면 귀국하여 중국 내 통일, 또는 유사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을 받았다.

오전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점심시간 전에 수업 일과가 끝나도록 교

과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간혹 정규 교과 외 특강으로 ‘건강 태권도’, ‘조선의 전통문화’, ‘노래 가창 연습’ 등의 강의를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특성 상, 연수생들이 북한의 문화를 좀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제공의 특별 활동으로 여겨진다.<sup>10)</sup>

## 2.2. 교재의 구성과 활용

제보자들은 2002년 연수를 받으면서 두 권의 교재를 사용하였다. 강독 수업을 위한 교재로는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에서 2002년에 발간한 『조선어강독2』를 사용하였고, 회화 수업을 위한 교재로는 같은 출판사에서 1999년 발간한 『조선어회화』를 교재로 삼았다. 9개월의 연수 기간 동안 이것 이외 새로운 교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보자의 제보, 또 제보자가 제공해 준 당시 사용 교재의 필기 내용을 볼 때 이 교재의 단원 모두를 연수 종반까지 마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어강독2』는 그 이름에서 마치 1편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해당 서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제보자 A는 이 책이 자신들이 도착했을 무렵에 새로 발간된 책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으며, 책의 서지사항에도 ‘주체91(2002)년 3월 23일’로 되어 있어 그 기억을 뒷받침한다. 더군다나 이 『조선어강독2』에는 다음과 같은 머리말이 붙어 있어 이 책의 제작 목적과 용도가 다른 아닌 이들 초청 연수생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외국실습생용교과서로 집필되었다.

1년간 자국내에서 조선어를 외국어로 전문교육 받고 우리 나라에 실습하

10) 비근한 예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서 시행하는 ‘외교관 대상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제3국의 아시아 관련 외교관을 초청하여 한국어 초급부터 4급까지 한국어 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오전에 진행되는 한국어교육 이외에 별도의 시간을 두어 태권도, 단소, 서예 등의 체험 활동과 한국의 역사, 통일 문제, 한국 경제, 민속 등의 주제로 저명 학자 초청 특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www.kf.or.kr](http://www.kf.or.kr)) 해외 한국학 진흥 분야 중 ‘한국어펠로십’ 등의 내용 참고.

려 온 학생들인것만큼 그들이 조선어의 기초를 이미 완성하고 조선어의 읽기, 말하기, 쓰기능력도 일정하게 갖추었으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sup>11)</sup>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조선어강독2』의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조선어강독1』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보자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는데, 연구자가 추측하기로는 이 전편의 책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2002년 이전에 입국한 연수자들을 위한 강독 교재를 편의상 『조선어강독1』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제보자를 포함한 정부 초청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김형직사범대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김일성종합대와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에 있어서 보조를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종합대의 경우 『조선문화어강독1·2(유학생용)』과 『조선말회화1·2(유학생용)』<sup>12)</sup>가 짝을 지어 ‘2(강좌)×2(교재)’ 교재 체제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김형직사범대에서도 이 궤(軌)에 맞추려는 교재 제작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이관식(2005)의 연구를 통해 학계에 보고된 바와 같이, 김형직사범대에서는 『조선어회화』의 짝에 맞는 『조선어회화2』를 2003년에 새로 발간하여 다분히 의도적으로 2×2 형태를 맞추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김윤교(2002), 『조선어강독2』,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1쪽. 띄어쓰기나 어법은 해당 저서의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밑줄은 연구자가 표시하였다. 저자 김윤교는 연합통신을 인용한 데일리NK의 보도 자료(2007. 11. 1.)에 따르면 김형직사범대학의 강좌(학과장)이자 국가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해당 기사문 참고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rint.php?cataId=nk09000&num=49237&viewmode=](http://www.dailynk.com/korean/read_print.php?cataId=nk09000&num=49237&viewmode=))

12) 발간 시기는 다음과 같다. 김병무·양옥주(1992), 『조선문화어강독1(유학생용)』, 리병무(1992), 『조선문화어강독2(유학생용)』, 권승모(1984), 『조선말회화』, 안정근(1992), 『조선말회화2』. 이 네 종의 교재가 일습(一襲)이 되어 김일성종합대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교재는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개정 혹은 교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으므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교재 제작과 변천의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 추후의 논의 과제로 남겨둔다.

셋째, 더군다나 제보자가 제보한 사항에 따르면, 『조선어회화』 후반부에 실린 ‘제4편 시청에 기초한 회화’는 소단원 중 ‘1. (영화문학) 사랑의 노래’ 이외에는 실제로 시청한 영상 자료가 없고 수업 교과로 배우지도 않았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새로 발간된 『조선어회화2』에는 이 4편에 시청 자료만을 더 추가하여 발간되었다는 점(이관식, 2005 : 210)은 이 교재 역시 실제 수업에는 잘 활용되지 못했을 ‘명목상의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실제 교재로는 강독 수업에는 『조선어강독2』를, 회화 수업에는 『조선어회화』 한 권씩만을 사용했으나, 외형적으로는 각 강좌에 두 권의 수준별 교재가 발간되어 있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독 교재는 주로 ‘회상실기(手記)’, ‘소설’, ‘수필’, ‘동화’, ‘전설’, ‘정론(論說)’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글들을 선정하여 전문 또는 발췌 형태로 실어 제작하였고, 회화 교재는 ① 상황에 따르는 회화, ② 직관에 기초한 회화, ③ 청취에 기초한 회화, ④ 시청에 기초한 회화로 구분하여 짧은 대화문 혹은 단문 독해 지문, 정보를 담은 듣기 지문, 영화 시나리오 등을 실어 제작한 형태로 되어 있다.

교재를 개발한 집필진은 대개 김형직사범대의 국어문학학부 교수진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조선어회화』에서는 김철주사범대의 김선규 부교수가, 『조선어강독』에서는 김일성종합대의 리동빈 부교수가 심사를 맡아 교재 제작에 있어 교외 전문가 집단의 상호 검토를 통한 검수 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 2.3. 수업 운영과 교수법

교사의 수업 운영과 교수법은 강독 수업과 회화 수업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제보자 A와 B의 인터뷰 속에서 강독 수업의 교사는 움직임을 포함해서 활동 지시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과업 중심의(task-based) 활동을 포함하여 짝 활동, 그룹 활동 등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교수법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심지어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나 발언도 극히 자제한 것으로



그러진다. 반면, 회화 수업은 비교적 교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유도하고, 역할극(role play)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한편, 면대면 형식의 개별 발음 지도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회화 교사는 대화문 중에 나타난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언급, 즉 자신의 결혼 여부, 자녀 숫자, 가족 전통, 명절 풍습 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제보자 A : 특히 회화 선생님의 성격이 밝았던 것이 기억나요. 다른 수업 선생님들은 사실 자기 이름도 안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이 분은 수업 시간에 자신의 성을 알려주셨고, (이름은 아마 안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무슨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도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래 가르쳐 오신 한국어교육의 전문가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이 분 전공도 이 대학 조선어과였을 거예요. 얼핏 저희가 느끼기에 대꾸는 전혀 안 하신 것 같지만 저희들이 하는 중국말도 좀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한자도 많이 알고 계셨고요.

제보자 B : 회화 선생님은 과제도 그렇게 많이 안 내 주셨어요. 늘 숙제로 내시는 것은 그날 배운 회화문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별로 대화문을 직접 만들어 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음날 말하기로 시키거나 두 명에서 네 명 정도의 사람이 짝을 지어 대화처럼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은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화문을 그냥 외운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새로운 대화를 만들게 해서 그런 연습도 많이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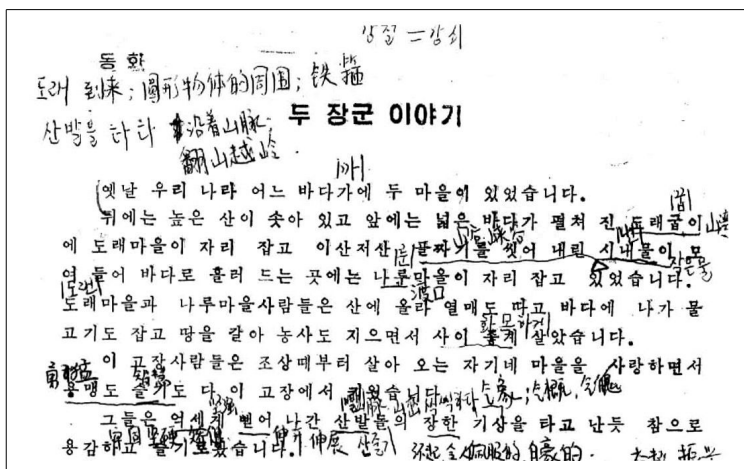
제보자들이 언급해 준 조선어 ‘강독’ 수업 운영은 다음과 같다.

#### <강독 수업>

- ① 강독의 지문은 설화, 소설, 실화, 동화, 고전소설 등으로 되어 있고 대개 8~9페이지에 이르는 긴 지문들이다.
- ②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면 전날 배운 지문을 복습하는 데 수업 시간의 절반 정도를 투입한다. 먼저 전날 배운 수업을 상기키시고 중요한 내용을 다시 짚어 준 다음 학생별로 과제 발표를 시킨다. 과제는 그날

배운 내용을 한국어로 요약하는 것이다.

- ③ 복습이 끝나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 이어 새 내용을 학습한다. 교사는 지문을 직접 읽으면서 강독하고, 새 단어나 필요한 표현이 있으면 중간중간 알려준다. 또한 발음상의 유의점이나 유의어 정보를 알려준다.
- ④ 학생들에게 지문을 읽히는 등의 활동은 별로 하지 않는다. 주로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며 단어나 용법 설명 등에 대해서는 학생의 질문을 받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림 1〉 『조선어강독2』 제2과 본문과 제보자의 필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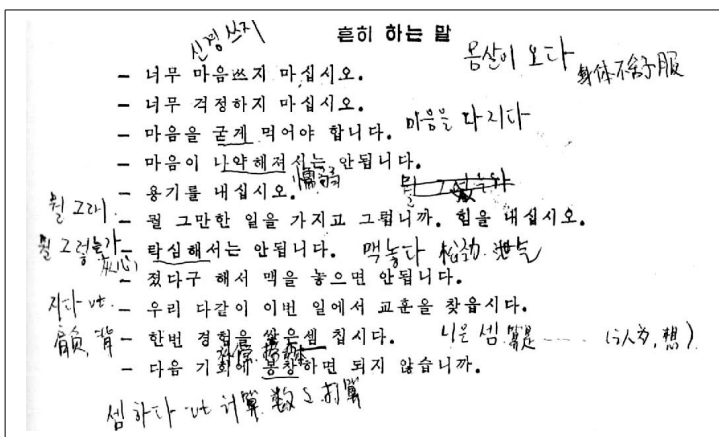
위의 <그림 1>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문에 학습자는 중국어로 그 뜻을 적어 놓거나, 유사어를 필기한다(시내물=작은 물, 사이 좋게=화목하게, 장한=씩씩하다 등). 또한 군데군데 교사의 지도에 따라 발음 표기를 적어 둔 필기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바다가→가, 도래마을→도래/ 등).

한편, 제보자들이 언급해 준 조선어 ‘회화’ 수업 운영은 다음과 같다.

#### <회화 수업>

- ① 회화의 교재는 주로 주제별, 상황별로 엮여 있고, 짧은 대화문이나 다양한 대체 표현을 제시한 형태로 되어 있다.

- ②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면 전날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인다. 주로 학생들을 호명하여 짧은 ‘질문하기→답하기’가 빠르게 이어진다.
- ③ 이어 지난 시간의 대화문을 외우게 하거나 과제로 부과하였던 ‘회화 만들기’를 수행한다. 학생들이 각자 만들어 온 회화는 그룹을 지어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특별히 발음 교정을 많이 하지 않는다.
- ④ 복습이 끝나면 새 회화를 시작한다. 먼저 교사가 대화문의 특성을 살려 억양과 속도를 맞추어 두 번 정도 읽는다. 이어 읽기 지문에 나타난 단어들의 뜻을 풀어준다.
- ⑤ 단어 설명이 끝나면 학생들을 지정하여 읽힌다. 이때에는 교사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생들의 발음을 교정해 준다.
- ⑥ 여러 차례 학생들을 호명하여 읽히고 발음을 교정한 다음, 교재의 대화문으로 연습을 시킨다. 교사가 지문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여 그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과 두 명 이상의 학생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키는 방식이 있었다.
- ⑦ 연습을 할 때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관련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한다.



〈그림 2〉『조선어회화』 제1편 대화 일부와 제보자의 필기 내용

위의 <그림 2>는 제보자가 인터뷰 당시 직접 보여준 회화 수업에 활

용한 교재의 한 부분이다. 위 그림에서 학습자가 단어 뜻을 적어 놓은 것은 대부분 전날 수업 예습을 통해 단어를 미리 찾아 예습한 사항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Vt’와 같이 사전에 실려 있는 문법적 정보 등도 발견할 수 있다. ‘마음쓰지=신경쓰지’와 같은 것은 교사가 유사 표현의 정보를 학습시켜 준 것이고, ‘마음을 먹다/마음을 다지다’와 같은 것은 유사한 관용 표현을 알려준 것을 기록한 것이며, 좌측에 ‘뭘 그래, 뭘 그렇는가’ 등의 필기는 교사가 제시문의 화용적 정보에 대해 언급해 준 것을 알 수 있게끔 한다.

## 2.4. 교실 내 상호작용 및 평가

강독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거의 독려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이 수업에 대해 ‘강독’이라는 말 그대로에 충실한 강의였다고 회고하였다.

반면 회화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장려한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외부에서 편입한 소수의 참가자를 제외하고<sup>13)</sup> 학급 구성원이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급생이고, 같은 모국어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숙소에서 학교까지 거의 모든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학습자들 사이의 친밀도와 공감대는 높았다. 학교에서는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거의 개입하지 않았으며, 다른 반 학습자들과도 편하게 어울렸다. 방과 후 숙소에서 과제를 할 때에도 이들은 함께 협력하며 과제를 하기도 했고, 기관의 조치나 평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하거나 상위 소속 기관인 중국 대사관측 담당자에게 공동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집단성을 보이기도 했다.

13) 제보자 A의 학급에는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한 조선족 학생 2명과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1명이, 제보자 B의 학급에는 북한과 무역을 하는 중국인 자녀 2명과 이란 외교관 자녀 1명이 있었다고 한다. 김형직사범대에서는 등록을 희망하는 외부인들을 중국 학점교류 유학생 반에 편입시켜 같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학급 구성과 환경에 대해서는 아래 3.1. 참고

이들 구성원에서 예외인 학생은 앞서 진술했던 외부 참가 학생들이다. 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헤어져 친해질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학급의 분위기에 잘 적응하였고 회화 수업 중의 상호작용 활동에서도 별달리 소외되지 않았다.

조선어 학습에 대한 평가에는 집단적인 성취도 평가나 총괄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제보하였다.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학급 배치나 수준 파악을 위한 진단 평가도 없었고, 정기적인 수준 평가도 없었다. 학기말에 지필 고사와 말하기 시험<sup>14)</sup>으로 이루어지는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중의 평가는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목표지향형의 형성 평가가 위주였고, 단어 시험을 포함한 지필형 시험보다는 외우기, 대화문 만들기, 역할극 하기, 토론하여 평가하기 등 수행형의 평가가 주종이었다. 제보자 B는 자신이 받은 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보자 B : 생각해 보면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더러 평가를 줄여 달라고 매달렸던 것 같기도 해요. 말하기 테스트 같은 것을 보기로 한 날에도 선생님에게 여러 학생들이 과외 행사나 다른 핑계를 대서 하지 말자고 조르면 그냥 그 시험을 취소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모두가 나이도 어리고 놀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라서 복습을 게을리 한 적도 있고, 선생님께 자주 때를 쓴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선생님께서는 대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을 잘 수용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평가 같은 것은 조금 더 무섭게 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물론 수업 중에 하는 말하기 평가나 역할극 평가는 정확하고 또 즉시 피드백을 주어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학생들에게 시험은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14) 기말고사의 말하기 시험 방식은 먼저 ① 주제를 정한 후 ② 그룹을 만들고 ③ 대화 참여자의 신분과 나이 등을 가상으로 설정한 다음 ④ 협동으로 알맞은 대화문을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 시험 방식은 평소 회화 수업에서도 계속 시행되는 형태였다.

### 3.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만족도

#### 3.1. 교육 및 생활 환경

다음으로 제보자들이 제보한 교육 및 생활 환경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제보자들은 모두 김형직사범대학의 일반 대학 강의실을 확보하여 만든 외국인 전용 교실에서 수업을 하였다. 중국 각 대학에서 파견된 연수생 약 17~8명의 학생에 자비로 프로그램에 등록한 중국인, 조선족, 고려인 출신 학생과 이란 출신 외교관 자녀 학생 여섯 명을 포함시키고 총 인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11~12명 정도로 두 개의 학급을 구성했다. 제보자 B의 제보에 따르면, 학급 구성은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대외경제 무역대와 산동대 학생을 한 학급, 산동사범대와 북경외대 학생을 한 학급으로 분반하였다고 한다.

제보자 B : 김형직사범대학의 강의실 풍경이나 학교 주변 풍경은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아침에 학생들이 많이 다녀서 교실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 보다 생각했지요. 저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이 사는 숙소에서 학교까지 실어 나르는 별도의 버스가 있어서 버스를 거의 탈 일이 없었거든요.

교실은 정말 평범했어요. 한국에 있는 교실은 특히 외국어 배울 때 교실마다 카세트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가 있고 요즘엔 컴퓨터와 프로젝터가 있는 게 보통인데, 저희들은 진짜 칠판과 분필만 있는 교실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전에 다니던 곳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뭐가 부족하다거나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교실의 환경은 깨끗하고 밝고 좋았던 거 같아요. 전기가 끊어지거나 뭐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냉난방 시설은 없었던 거 같아요. 앉아 있는 인원 에 비해 강의실이 무척 넓어서 여름엔 그냥 시원했는데, 가끔 다들 더워서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땀을 흘리며 수업했던 기억은 나요.

제보자 A : 제 기억에 교실 한켠에 난로 같은 게 있었던 거 같긴 한데, 그걸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네요. 교실에는 칠판과 분필만 있어 필 들려주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것은 모두 교사가 직접 했습니다. 대화 지문이나 한국어 강독 지문 내용 모두 교사가 육성으로 읽고 전달했어요. 대신 학교 안에 ‘외국어교육학습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시청각실 같은 데예요. 영화 같은 걸 보는 날에는 이동을 해서 수업을 했어요.

소규모의 구성원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비교적 넓은 강의실을 주어 교육 환경면에서는 그다지 불만족스럽거나 이질적인 것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개의 학급이 이미 중급 초반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두 반 차이의 한국어 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수준별로 수업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반을 섞는 일도 없었다.

이들이 평양에서 머물렀던 곳은 김형직사범대와 관계없는 외국인 교환유학생 지정 숙소였다.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이곳은 평양직할시 모란봉구역 개신문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소의 생활 환경은 비교적 깨끗했고 평균적인 북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보다 더 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현관과 작은 거실,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1인 1실의 개인 방이 마련된 독립된 거주 공간이었고, 건물 안 1층에는 이발소와 독서실, 휴게실 등이 있었다. 숙소 내에 매점이 있고, 기숙사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숙소에는 4명의 북한 대학생들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숙소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유학생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서 숙소를 나갈 때마다 반드시 행선지와 동행인 등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거나 외출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주말에는 친구들과끼리 어울려 평양 시내로 구경을 나가기도 했다. 즉 통제의 의미보다는 신변 보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제보자들에

의하면 김형직사범대학의 교사들이나 다른 북한 주민이 유학생들이나 자신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자주 느꼈고 어쩐지 자신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은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아침마다 숙소로 오는 별도의 통학 버스를 타고 등교했다. 버스로 동대원구역에 있는 김형직사범대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고, 주말 외출 이외 연수 기간 내내 다른 교통편은 그다지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생활비는 전액 지원을 받았다. 북한 정부에서 교육비와 각종 거주 비용을 부담했고, 중국 대사관에서는 용돈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수업을 마친 후에 외부로 나갈 일도 별로 없어서 특별히 돈을 쓸 만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 학습 도우미로 있는 북한 학생과도 친분이 생기고 감시나 통제도 다소 느그러진 가을 이후에는 몇몇 학생들이 암시장이나 사설 장마당에서 환전을 하거나 사람들과 접촉하는 등 생활 수칙을 위반하는 일이 간혹 있기도 했으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없는 이상 묵인하고 지나갔으며, 제보자들이 지낸 시기에는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고 한다.

### 3.2. 방과 후 과외 활동 및 답사

여러 가지 통제가 많아 활동에 제약이 커서 학교 수업 이후 오후 시간은 주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예·복습을 하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숙소에서 인터넷은 물론 전화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름 이후 단조로운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하거나 지루해하는 경향도 있었고, 숙제를 마치면 숙소 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연휴나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와 중국 대사관측이 준비해 준 과외 활동들은 기분을 전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고 그 자체로도 유익하였다고 제보자들은 술회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어 교육과정 내에 특강 형태로 노래나 태권도 등을 접하는 특별 활동이 있었고, 주말에는 평양 근교의 만경대나 금수산 모란봉 등지나 시내 박물관



관 및 자연 휴양지를 찾아갔다고 한다. 방학 기간에는 참가자들이 단체로 북한 내 주요 명승지를 여행하는 답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묘향산, 원산, 개성 등지를 다녀왔는데, 두 제보자 모두 인상 깊고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북한 체류 기간 동안의 명절은 김일성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과 그해 추석 정도였다. 태양절에는 숙소 식당의 메뉴, 근무자의 복장, 학교 안팎의 장식만으로도 다소 과잉되어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모든 학생들이 혁명기념관을 보고 밤에 평양 51경기장에 가서 집체 공연인 ‘아리랑’을 본 후 늦게 귀가했다고 한다. 추석 때에는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는 없었고, 대사관에서 주최한 유학생 모임에 가서 평양에 있는 여러 중국 유학생들을 만났다고 한다.

교육 담당 기관인 김형직사범대학의 교사는 학교 밖의 답사 활동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고 인솔 교사나 직원 파견 근무도 없었다. 평양 시내나 근교 답사에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관리자(도우미) 학생들이 함께 다녔고, 원거리 답사의 경우 학생들이 해당 지역으로 보내지면 그곳에서 안내원이 인솔하여 안내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3.3. 프로그램 만족도 및 향후 진로, 기타

두 제보자는 김형직사범대학에서 보낸 9개월의 한국어 연수에 대해 비교적 만족감을 나타냈다. 자신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이전에 비해 여러 면에서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자신이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보다 특히 발음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런 한편으로, 일부 학생들 중에 이미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문화 차이를 이미 잘 알고 북한 연수를 택한 경우도 있어, 자신의 말투나 어휘가 북한식으로 될 것을 우려하여 의식적으로 학습을 불성실하게 하기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제보자 B).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학생들은 북한의 조선어교육을 받으면서도 남한 말과의 이질성(異質性) 문제 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측면도 한편으로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을 포함한 당시 연수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를 처음 배운 시기가 한국의 대중가요나 드라마가 아시아권에 최초로 대규모의 영향을 미친 소위 ‘1차 한류’<sup>15)</sup>의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대학 전공 선택을 비롯해서 여러 면에서 한국 문화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다소 대담한 학생들은 북한에서 남한 한류 문화에 대해 간혹 발언하기도 했으나 북한 주민과의 접촉 범위가 워낙 한정적이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가깝게 지내게 된 숙소 내 북한 도우미 대학생들은 2002년 중국에서 처음 방영된 ‘가을동화’의 인기에 대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한국 영화나 대중가요, 남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은근한 관심을 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제보자 A).

제보자 A : 나이 어린 대학생들이 그렇게 외국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모여 거의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공부를 할 만한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외국 경험이 처음인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는 그때 공부가 좋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가끔씩은 다시 가보고 싶다는 기분도 들고, 그때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제게 인상 깊게 남은 것은 북한의 자연 풍경하고 사람들 이에요. 다들 착하고 순박해서 제게는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또 중국인이라고 보는 이상한 시선이나 차별 같은 것도 없어서 좋았어요. 몇몇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는 중국 생활을 하셨던 분도 계셨고 중국어도 몇 마디 하시면서 호감을 보이신 분들도 많았고요. 제 인생 첫 외국 생활이 북한이었다는 것이 제게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이상해 할 것은 아니예요. 그냥 잘 갔다 왔으니깐요.

15)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화권 한류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하여 그 기반이 형성되었고, 2000년대 초반 일본과 동남아시아권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아시아적으로 제1차 한류로 이름붙일 만한 신드롬이 형성되었다. 주된 인기 콘텐츠는 감성적인 멜로 TV 드라마와 댄스 그룹의 K-Pop 음악이었다.

제보자 B : 지금도 유학 중이고…… 대학 입학 이후 제 지금 인생 대부분이 다 유학 생활이지만 그때가 첫 유학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래서 더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이젠 한국 생활을 더 오래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추억이 많고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잘 알게 된 것도 제게는 좋은 자산이에요.

연수를 다 마치고 중국에 귀국을 하니 시간이 멈춘 곳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온 것 같았어요. 마치 시골에 있다가 처음 큰 도시에 도착한 느낌? 주변에서도 별다른 반응은 없었고, 그냥 잘 다녀왔냐는 정도만 물어봤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대학 전공으로 배운 한국어를 어떻게든 끝까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고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접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도 유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은 민족인데 의식,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어쩌면 이렇게 천지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두 나라가 정말 달라요. 그때 북한에서 같이 조선어 연수를 받았던 친구들의 진로는 저와 대체로 비슷해요. 유학을 가서 석박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은 중국 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 다니거나 공무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 III. 결론

지금까지 2002년 북한의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연수’를 받은 중국 유학생의 면담 자료를 토대로 파견 배경과 동기, 조선어 교과서의 운영,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만족 수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밝혀 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의 북한 파견 조선어 연수생의 규모나 파견 정도, 교육의 방식, 교재의 활용과 교수법 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의 방식, 교재의 운용과 활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덧붙여 연수에 참여한 중국 내 대학과 연수 대상으로 선정된 대

학의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북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어교육 연구의 학문적 외연을 넓히는 데에도 일조(一助)할 것이다.

제보자들은 모두 북한에서 9개월 이상 지속된 어학연수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관된 방식과 수업 이외에 제공된 교외 활동과 답사, 또 체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닫힌 사회 체제를 남다르게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자부심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를 포함하여 연수 참여자들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남한 쪽의 말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다. 마치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각기 구사했을 때의 득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양국을 오갈 수 있는 학습자들은 ‘어떤 말을 구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2002년의 김형직사범대학의 조선어 연수의 과정만을 재구성하였지만, 추후의 연구를 통해 2002년이 아닌 다른 시기의 연수 과정, 나아가 이 학교와 함께 연수 프로그램의 주관 대학이었던 김일성종합대학의 연수 운영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제보자를 섭외하여 이에 대한 연구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질적 심층 면접 방식이 보일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수 프로그램 전반을 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1. 2. 23. 투고되었으며, 2011.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11. 3.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 참고문헌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重燮(2000), “南北韓 한국어 教育 比較研究”, 『語文研究』 제28권 제2호, 韓國語文教育 研究會, 77~99.
- 김윤교(2002), 『조선어강독2』,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 김중섭·조현용(1996), “북한의 언어정책과 한국어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제13호, 이중언어학회, 115~136.
- 김중섭·조현용(1998), “북한의 한국어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제9권 제1호,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113~133.
- 리갑재(1999), 『조선어회화』,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 이관식(2005), “북한의 한국어교육 회화교재 분석 연구”, 『한국어 교육』 제16권 제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5~217.
- 李官植(2007), “北韓의 韓國語 文化(民俗)教育 教材 분석”, 『語文研究』 제35권 제3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421~447.
- 이주행(2004), “남한과 북한의 외국인을 위한 문법 교과서 비교 분석”, 『국어교육』 제115호, 한국어교육학회, 377~407.
- 任洪彬(1993), “북한의 언어 정책”, 국어학회 편, 『세계의 언어정책』 중, 태학사.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최호철(1996), “북한어학에 대한 남한의 연구—약천 김민수 선생 고회 기념 특집”, 『한국어학』 제3호, 한국어학회, 43~91.
- 허재영(2007),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이해와 탐색』, 보고사.
- Rod Ellis(1998), The evaluation of communicative tasks, In B. Tomlinson(Eds.), *Material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초록>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면담 조사 연구**

— 김형직사범대학 연수생 출신의 제보자 면담을 중심으로 —

강남옥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대학에 중장기 어학연수를 다녀온 중국 유학생을 면담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심층 면담하고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의 조선어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북한의 김형직사범대학에 파견되었던 두 명의 제보자를 섭외하여 ‘외국어교육기관의 거시적·미시적 평가’라는 관점 하에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 운영 전반을 재구성해 보았다. 제보자들은 중국 내 여섯 개 대학에서 선발되어 북한 내 두 개의 대학에 분산 배치되어 어학연수를 받았고, 강독과 회화 중심으로 수업을 받았다. 이들은 정부 초청 장학생이자 교수 추천의 동기를 얻어 북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조선어교육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북한과 남한의 언어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접했던 북한식의 말투나 언어 구사를 완전하게 습득해야겠다는 동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어】** 북한의 한국어교육, 북한의 외국어 교수·학습, 북한의 회화 교육 교재, 북한의 강독 교육 교재, 북한 어학연수, 김형직사범대학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of North Korean KFL  
Program Using Informants Interview Method

—In-depth Interview with the Participants of Kim Hyong-jik Pedagogical  
University Korean Language Program—

Kang, Nam-w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North Korean Government managed the language training program cooperated with Chinese Government. To achieve this, in-depth interview was carried out into two Chinese informants. Through the interview, various aspects and organizations of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North Korea were reconstructed.

The informants participated in Korean language program from March to December in 2002, even dispatched to North Korea by recommendation of their professors and the authorities. They were selected in 6 universities in China, and placed to 2 university in North Korea — the one is Kim Il-sung University and the other is Kim Hyong-jik Pedagogical University, which was two informants participated in.

In the view of macro and micro evalua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program, this paper tried to draw a outlines of the North Korean KFL systems in university, such as administrations, class managements, teaching method, teaching materials, accommodation, daily life, extra class, and so on.

In the interview, the informants testified diverse facts about North Korean KFL program. They satisfied all programs they were offered generally, however some of the program participants recognized the differences of the langua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y were

not motivated to acquire North Korean way of language teaching completely.

【Key words】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North Korea,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 North Korea, KFL Speaking textbook in North Korea, KFL Reading textbook in North Korea, North Korean language training program, Kim Hyong-jik Pedagogical University